

크리스찬아카데미
2018 경기노회 목회아카데미 심화과정


“변화하는 세계, 지역교회의 창의적 마을목회”

*일 시: 2018년 7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수원성교회(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30-2)

<주 최>

경기노회 훈련원,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교회활력화네트워크

<주 관>

 크리스찬아카데미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702호
T.02-747-6179,80 F.02-747-6181

경기노회 목회아카데미 심화과정

(2018. 7. 10)

- 강연1, “성서로 읽는 신앙과 선교의 본질” P. 1
*이영재 목사(성서와 설교연구원장, 화평교회)

- 강연2/워크샵, “교회변화를 위한 동력 만들기” P. 12
*양혁승 교수(연세대)
*배종석 교수(고려대)

- 강연3, “목회자의 리더십” P. 36
*이덕진 장로(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강연4, “지역의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회학교” P. 52
*배경임 국장(좋은학교만들기 네트워크)

<일 정>

09:30/ 등록

09:45/ 개회기도회

10:00-12:00/ 강연1

*제목: “성서로 읽는 신앙과 선교의 본질”

*강사: 이영재 목사(성서와 설교연구원장, 화평교회)

12:00/ 점심식사

13:00-15:00/ 강연2/워크샵

*제목: “교회변화를 위한 동력 만들기”

*강사: 양혁승 교수(연세대), 배종석 교수(고려대)

15:00-15:20/ 휴식

15:20-16:20/ 강연3

*제목: “목회자의 리더십”

*강사: 이덕진 장로(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16:20-17:00/ 강연4

*제목: “지역의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회학교”

*강사: 배경임 국장(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17:00/ 마무리기도 : 마두락 목사

<개회예배>(2018. 7. 10. 09:45)

*인도/ 맹범규 목사

묵상기도 / 다같이

찬 송 / 35장(1,4절) - 큰 영화로신 주

1.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4.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 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 도 / 김철수 목사

오늘의 말씀 /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묵상 / 다같이

찬 송 / 620장(1절) -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 도 / 안광수 목사

- 인사 / 마두락 목사(경기노회장)
이근복 목사(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 나눔
 1. 목회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위해 수고한 노회와 성서학원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 장소와 식사, 간식을 제공한 수원성교회(안광수 목사)에 감사드립니다.
 3. 참석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서로 살펴본 교회의 선교

이영재 (Ph.D., 전주화평교회/전주성경학당)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집중해 왔다. 한국사회가 전태일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하였을 때 한국교회 안에서 사회선교의 과제가 비로소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라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70년대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개발독재의 정권에 협조하는 가운데 도시산업선교를 좌경용공 세력으로 단죄하며 사회선교를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선교의 관념은 사회선교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의 근본주의 진영에서 개인의 영혼구원이라는 선교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선교를 진행해온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사회정의의 선교, 생명을 살리는 환경의 선교, 세계평화를 겨냥한 한반도 평화의 선교, 등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공헌해 왔다. 기독교의 선교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된 인식을 조화로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바른 선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제를 안고 성서를 다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성서가 제시하는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을 위한 교회의 선교는 어떠한 지침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쟁점을 푸는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1. 구원(救援, **יְשׁוּעָה** <여슈아>)이란 무엇인가?

‘구원(救援)’은 성서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핵심되는 주제이다. 성서의 역사를 ‘구원사’라고도 부를 만큼 ‘구원’은 중요한 주제이다. 예수의 이름도 ‘구원’이란 뜻이다. 성서의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하다’란 히브리어 동사는 <야샤 **יָשָׁא**>이다. 이 동사는 ‘구원하다/구출하다/승리를 안겨주다/돕다/복수하다/보존하다’ 등으로 다양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그 아랍어 어원은 ‘넓히다/넉넉하게 하다’란 뜻인데, 그 반대말 <사라르>는 ‘좁다/제한되다/억압하다’란 뜻이다. 넓힌다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성경에 동사 <야샤>와 그 파생어들은 353회 언급된다. 동사의 빈도수를 살펴보자. 토라에 5회, 너비임에는 137회[여호수아 2회, 사사기 18회, 사무엘-열왕기서 32회, 이사야 25회, 예레미야 17회, 에스겔 3회, 열두소예언서 15회], 커투빔에 89회[시편 72회, 욥기 6회, 잠언 2회, 역대기 8회, 느헤미야 1회] 언급된다.

명사 <여슈아 **יְשׁוּעָה**>는 성서에 77회 언급된다. 빈도수는 토라에 4회, 너비임에 24

회[신명기역사서 4회, 이사야 18회, 열두소예언서 2회], 커투빔에 48회[욥기 2회, 시편 48회, 역대기 2회]로 나타난다. 이상하게도 성서의 중심이 되는 주제로서는 그 명사의 빈도수가 그리 많지 않다.

명사와 동사의 빈도수를 종합해 보면 이상한 점이 두드러진다. 명사와 동사가 모두 시편과 이사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점도 이상하지만 성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토라(오경)에 그 빈도수가 도합 9회로서 너무나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더욱 이상하다. 토라에 명사는 4회(창49:18; 출14:3; 15:2; 신32:15), 동사는 5회 나온다(출2:17; 14:30; 민10:9; 신20:4; 33:29).

토라에 언급된 경우에 구원은 모두가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약성서에서 '구원'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개념은 사회적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단어의 실제적인 용례를 살펴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 보도록 하자.

개인과 개인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침략한 지배자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구원자/구주'라고 부른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자들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며 시편에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시 68:19~21). '구원자'가 사람인 경우에도 그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고백된다.

신약성서에는 구원은 죄의 용서를 통하여 사탄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사탄 또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은 영적인 의미로 발전한 개념이다.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구원은 대부분 원수의 억압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구원의 관념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학에도 깔려 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로마제국의 식민지 억압과 헤롯과 예루살렘성전의 지배체제라는 이중삼중의 사회적 수탈구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구원의 정신적 해석은 신약성서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방인의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때 야훼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자유를 회복한다. 이 때 그 공로는 야훼께 온전히 돌리도록 헤렘법을 준수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등 모든 이득을 야훼께로 돌려야 한다(삼상17:47). 억압자를 물리치지 못하고 후퇴할 때에는 야훼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시62:7). 이 때 야훼는 구원의 방패(시18:35), 투구(사59:17), 갑옷(사61:10)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구원은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된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영성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패배가 없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사60:18). 이러한 고백에서 구원의 영적인 의미가 개진된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에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로마제국을 물리친 것은 아니었다. 애굽제국의 억압을 물리쳤고, 다윗왕조의 타락한 우상숭배 왕권을 물리쳤으며, 바빌론제국의 억압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약성서의 야훼 하나님과는 매우 다른 것이 신약성서의 구원이다.

로마제국의 억압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고난을 감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이나 노예, 남자나 여자를 포함하여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신약성서의 신비한 구원관은 믿는 자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며 세심한 성서독서를 요청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구원의 고백이 지닌 깊은 영성 때문에 구원을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그것이 지닌 역사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혼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신비주의의 종교성에 빠져 잘못되기 십상이다. 이 점을 방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역사성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올바른 구원관을 견지하기 위해서 구약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사회적 구원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원초적인 구원 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된 구원의 바탕에는 모든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현실적인 구원이 깔려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사회적 구원은 완성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억압체제 하에서 고난 받는 성도의 구원은 조금도 유보될 수 없다.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전취할 수 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온전한 구원이 종말 이전에 은혜로써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영혼(נפש <네페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편의 할렐루야 찬양시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란 노랫말이 반복된다. 이 찬양시에 사용된 ‘영혼’이란 용어의 원어는 히브리어 נפש (네페쉬)이다.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이나 새번역은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종종 공동번역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시146:1). 이 단어는 또한 ‘생명’이라고 옮기기도 하고 ‘생물’이라고 할 때의 ‘물(物)’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우리말 역본은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영역본들은 대체로 soul이라고 옮기고 있다.

우리말로 ‘영혼(靈魂)’은 영(靈)과 혼백(魂魄)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과 혼백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한 존재로서 감각과 인식작용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를 영혼이라고 간주한다. 넓은 의미에서 영혼의 동의어로서는 낫·혼·영·혼령·혼백 등이 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혼을 사령(死靈)과 생령(生靈)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다. 대부분의 원시종교에서 사령은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으로 가는

영을 말하고, 생령은 살아 있는 사람의 몸 속에 깃들여 있는 영혼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망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려고 굿을 하는 무속의 제의에서 볼 수 있다. 민간신앙에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 떠돌아다니다가 꿈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믿는다. 중병이나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의식이 흐려지면서 유체이탈이 되기도 한다고 믿는다.

사령은 조령(祖靈)과 원귀(冤鬼)로 구분된다. 조령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저승으로 편안히 들어간 영혼으로서 선령(善靈)이 되는 반면에, 원귀는 생전에 한이 많아 저승으로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이 된다. 일반적으로 선령은 3년 탈상으로써 저승에 안전하게 들어가지만 원귀는 3년이 지나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악령의 원한을 풀어서 저승으로 천도하는 ‘진오기’, ‘오구굿’, ‘씻김굿’ 같은 무속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관념을 지닌 ‘영혼’이란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נֶפֶשׁ (네페쉬)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네페쉬는 우리말 영혼과 사뭇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네페쉬는 동물의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며(창1:20, 21, 24), 동물의 피 속에도 들어있다(창9:5; 레17:11). 창세기 1장에 ‘생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נֶפֶשׁ חַיָּה (네페쉬 하야)이다. 살아있는 네페쉬가 생물이다. 사람도 ‘네페쉬 하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 한글개역은 ‘생령’, 새번역과 카톨릭역은 ‘생명체’라고 옮겼으며 공동번역은 의역하여 ‘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옮겼다.

본디 נֶפֶשׁ (네페쉬)는 목이나 목구멍을 가리키는 명사였다. 목구멍에는 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이다. 사람의 목구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숨’(נְשָׁמָה 너샤마)이 들락거린다(창2:7). 우리말 역본들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נְשָׁמָה (너샤마)를 개역은 ‘생기’, 새번역은 ‘생명의 기운’, 공동역은 ‘입김’, 카톨릭역은 ‘생명의 숨’이라고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목구멍에 들락거리는 동안 그 사람은 살아있는 네페쉬가 된다. 이러한 창세기의 인간론은 우리말의 ‘영혼’이란 개념과 다르다. 구약성서의 נֶפֶשׁ (네페쉬)는 한 개별적인 존재자 자체를 가리킨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찬양은 찬양자가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한다는 뜻이다. 유체이탈 현상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이원론적인 인식은 히브리어 נֶפֶשׁ (네페쉬)에는 찾아 볼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영혼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네페쉬가 육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육체와 일체화된 생명체임을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도 성령과의 합일을 가르쳤을 뿐 개별자의 영혼이 영속한다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의 ‘네페쉬’ 관념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레니즘 세계에 설명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어 성경 LXX에서 ‘네페쉬’의 번역로 사용된 그리스어 ψυχή (푸쉬케)를 가지고 성서의 인간론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스어 ψυχή (푸쉬케)는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불멸하는 영혼으로 이해되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영혼불멸사상이 후대에 전개된 포스트 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정교하게 발전하였는데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중세 기독교에는 육체와 분리된 영혼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발달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와 나란히 육체의 부활이라는 관념도 없어지지 않고 병존하였다. 현대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성령과 교호하는 영혼의 활동을 강조하여 영혼불멸 사상을 확고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성경에는 없으며 헬라철학에서 파 온 것이다. 영혼불멸 사상은 힌두교에도 있다. 인도에 이주한 아리아인들은 이미 육체와 독립된 영혼의 존재를 믿었으며 죽음 이후에 존속하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나중에 발달한 업(業, karma)의 사상이 이 믿음에서 펼쳐져 윤회 신앙이 되었다. 그러나 불교는 인도의 영혼불멸설을 부정하였다.

불교는 무아설(無我說)으로써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인간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이 화합한 존재이며 영혼은 없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사자공양(死者供養)이나 정토신앙 같은 분파에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민속종교를 흡수하면서 영혼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다.

한국기독교는 일반 대중의 영혼관을 받아들이고 또한 포스트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은 서구신학의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장례문화를 개발함으로써 전통적인 유교의 장례문화와 크게 충돌하였다. 유교의 조상제례에 의하면 조상의 혼과 백이 정성스레 드리는 제상에 오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예식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서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영접되며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신앙은 성경에는 없다. 한국교회에서 서구교회의 영혼불멸신앙이 토착화의 과정에서 민간의 영혼 사상과 기묘하게 결합하였다.

아무튼 성경의 구원관은 사뭇 다르다. ‘영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의 נֶפֶשׁ (네페쉬)란 단어는 생명체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성경의 구원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구원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자면 전인간의 구원이 성경의 구원이다.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죄인에게 퍼부어진 저주이다. 인간의 육체는 흙이지만 그 속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어 인간 존재는 נֶפֶשׁ (네페쉬)가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נֶפֶשׁ (네페쉬)의 구원, 곧 전존재의 구원이다.

3. 기독교 선교의 기초: 토라의 문명비평

토라에는 도성의 신학이 수미일관으로 흐르고 있다. 토라의 이야기를 간추려 보자. 미츠라임(애굽) 제국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임한다(출19:3~6).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에서 법을 배우고(출19:1~10:10) 광야에서 그 법을 익힌다(출15:22~18:27; 민10:11~20:13; 21:4~9). 마침내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단강 동편의 모든 ‘도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한다(민21~24장; 신9:1~6).

하나님의 백성의 아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갓 문중과 르우벤 문중은 요단 동편에 ‘도성’을 건축하였다(민32:16, 17 등). 레위인들이 사용할 도성과 초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 보호받아야 할 피의자들이 도망하여 올 ‘도피성’들을 이스라엘은 마련하

여야 한다(민35:2 이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보호하고 창조계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라의 시나리오는 고대근동의 영웅숭배와 왕국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심판대 위에 세운다. ‘도성’은 자기를 섬기는 불신앙의 성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타인을 보호하는 믿음의 ‘도성’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죄 많은 도성의 파괴는 하나님을 거둬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의 패역한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로지 백성에 앞서 가시는 야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도성’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은 가나안의 성민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이스라엘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신9:6이하).

4. 창세기에 나타난 선교신학

선교를 뜻하는 라틴어 missio는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드>가 이에 해당한다. 야훼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칠일의 리듬으로 타고 안식을 하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신다(창2:1~3). 안식일의 규칙적 리듬으로 땅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신다(창2:4). ‘천지의 내력<톨도트>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야훼 하나님은 땅의 계속 창조를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셨다. 그래서 ‘땅을 섬길 사람’을 지으셨다(창2:5). 역본들에서 ‘땅을 갈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워아담 라아보드 옛-하아다마>인데 여기에 동사 <아바드>가 쓰인다. <아바드>는 자신의 존재와 노동력과 시간을 타자를 위해 투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이 명사 <에베드>가 되면 노예를 가리키거나 파라오의 신하들을 가리킨다. 이 동사의 목적어로 하나님이 오면 예배하다를 뜻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본디 땅의 계속 창조를 위한 것이었으며 사람은 그 선교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되었다.

선교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과 하나님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가 곧 사람이다. 흙을 물에 개어서 자신의 모양을 닮도록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자신의 숨<너샤마>를 불어넣으셨다(창2:7). 흙과 물은 땅을 구성한다(창1:10). 사람을 흙과 물로 조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노동이 투여된 작품이 사람이다.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그 조형물을 살아있는 생물로 만드셨다. 숨은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코 속으로 불어 사람의 몸에 주입한 하나님의 기운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쉰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한다(communio).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겨났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צל렘>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דְמוּת> 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다(창1:26, 나아세 아담 버찰메누 키더무테누). 사람은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만물을 다스리는 직임을 위임받았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써 땅을 눌러 밟고 있어야 하며<카바쉬> 땅을 다스려야 하는<라다> 사명(mission)을 받았다(창1:28). 피조물이 보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

은 주권자이다.

위의 밑줄친 동사 <카바쉬>는 종래의 역본들에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번역되었다. 1960년대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이 번역이 서구의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번역을 ‘땅을 섬기라’라고 개정하기로 권고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카바쉬>에서 ‘섬기다’란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약하게 의역하여 ‘땅을 복속하다’라고 번역하자고 제안하였다(TWOT). 그러나 나는 <카바쉬> 동사가 발로 어떤 대상을 꼭 밟아 누르고 있는 동작을 지시한다고 본다. 사람은 모름지기 땅을 밟고 살아야 하며 땅이 높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속성을 눌러서 제어하는 사명을 띠고 창조되었다. 바벨성을 망대를 하늘에 닿도록 쌓아올렸을 때 그 행위는 사람의 사명을 망각한 타락한 행위가 된다. 여리고를 위시한 가나안의 도성들은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써 바벨성을 계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사례들이다. 이것을 성서는 사람의 타락한 결과로 드러나는 교만으로 규정한다. 오로지 땅을 밟아 눌러서 그 위치를 아래쪽에 겸손하게 낮추어주는 사명을 사람이 맡았다. 사람은 낮은 데 처하는 겸손의 행위를 통해서 땅을 제어한다.

위의 밑줄친 동사 <라다>가 바로 그러나 섬김의 통치를 나타낸다. 이 동사는 <마살>이란 동사와 반대개념을 전달하다. 동사 <마살>은 폭력으로 타자를 강제하여 제압하는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화가 난 카인은 문지방에 스며든 죄를 강압하여 죄의 탐욕을 다스려야 했다(창4:7, 티머살-보).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을 다스릴 때 피조물이 어떤 존재로부터도 억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 존재를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주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만물을 생장시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피조물들에게 파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심상이 내뿜는 인간론 신학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셨다. 아담을 거기에 두시면서 그곳에는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본디 사람은 채식동물로 지음받았다(창1:29). 에덴동산에는 채소와 과수나무와 곡물이 풍부하였다. 먹고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동산 바깥은 미완의 땅을 온전하게 창조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하나님은 매일 저녁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속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의논하셨다(창3:8, 러루약흐 하욘).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는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염려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타락한 인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다스리는 위상으로 복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온 땅이 파괴되고 망가지기 때문이다(창6:12, 니척하타 > 삭하트,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키셨다. 파괴된 땅을 원상복구하려고 당대에 흠없이 완전한 의인 노아를 택하신 것이다. 그러나 노아마저도 ‘흠의 사람’<이쉬 하아다마>이 되어서 범죄함으로써 노아의 자녀 가운데서 도성을 다시 짓는 죄악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었다(창9:20).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애굽<미스라임>과 니느웨와 앗수르와 같은 도성을 건설하는 니므롯 같은 용사들이 나왔고 대도시 레센성을 건설하였다. 급기야 시날평야에 집결한 사

람들은 바벨성을 쌓아 땅의 교만을 한껏 부추겼다. 하나님의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단결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온 땅에 흠으셨다(창11:1~9).

5. 신약성서에 나타난 선교신학

그리스어 성경의 요한복음서에서 <코스모스>란 단어는 ‘세상’이라고 번역된다. 말씀이 육이 되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배척하였다(요 1:10). 요한의 문집에서 <코스모스>란 단어는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데 이 단어는 고대 헬레니즘 세계를 지배했던 폴리스의 질서를 의미하였다. 폴리스는 도시국가였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도성을 의미하는 <이르>에 해당한다. 하나님은 세상<코스모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죽음이 지배하는 코스모스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요3:16).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선교의 최종목적이다.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창2:9).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려고 해도 그 길이 막혀 있어 못 간다. 그룹 둘이 화염검을 돌리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창 3:24). 이 막힌 길목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몸소 지상에 내려 오셨다. 이러한 신학은 출25:22의 성막신학에 나타난다. 증거궤의 뚜껑 위에 두 그룹을 조형해서 설치한 것(출25:18)은 궤 안에 있는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이 곧 생명나무이며 증거궤의 뚜껑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임을 상징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나무인 것이다.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에게 죽음은 없다.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끊어졌으나 이제 증거궤 위에서 만남이 다시 이루어진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출25:22, 워노아드티 러카 삼). 이러한 화해의 신학은 바울의 기독교론 신학에서 핵심이 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롬3:25). 이 구절에서 믿줄친 ‘화목제물’은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리오스’인데 이것은 출22:25의 ‘카포렛’의 번역어이다. 위의 구절을 다시 직역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궤의 뚜껑으로 계획하셨으니’가 된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모세와 다시 만나시는 소통(communio/koinonia)의 장소인 법궤 뚜껑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죄인과 화해하신다(롬5:10; 고후5:18~21, 카탈라쏘). 예수가 곧 육이 되신 말씀이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요1:1).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예수는 일생 선교의 사역에 열중하셨다. 예수선교의 중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이다(막15). 여기서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논할 계제는 못된다. 다만 전도는 선포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케류소>라는 동사로 표현한다는 사실(마10:7)과 선교는 파송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살락흐=아포스텔로=mitte/missio=보내다>로 자주

표현된다(사6:8; 마10:5)는 사실만 상기시키려고 한다. 선교사는 화해의 예수를 선포 하러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선교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해야 한다(마10:7).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세력은 ‘세상<코스모스>’이다. <코스모스>는 도성의 질서를 가리키는 헬레니즘의 용어이다. 예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16:33)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도성의 삶을 의미하며 예수와 제자들은 도성의 문명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차 있는지를 선포하고 예수를 통하여 도성의 문명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였다. 그것이 곧 ‘회개하라’는 선포로 전달되었다.

예수의 선교여정을 살펴보면 도성을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도성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어 들판이나 산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다. 헬레니즘으로 대변되는 도성문명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예수는 도성 밖에서, 도성을 향하여, 외치셨으며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체포되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히13:13).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도 헬레니스트 세계의 폴리스(도성)들에 들어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그곳에서 카인의 에녹성을 계대한 헬라의 도성들과 그 성민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해하며 우상을 버릴 것을 선포하다가 도성에서 박해받고 쫓겨났으며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받았다. 아래의 사도파송의 말씀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마10:6,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10: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마10:14,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마10:15,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바울의 삼차에 걸친 선교여정을 보아도 사도들이 헬레니스트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러한 행보 속에는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희망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는다’라고 선언했다(히13:14). 우리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외친다.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 ‘하늘 도성’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계21:10). 그러므로 세상의 폭력적 도성이 완전히 극복되고 하나님의 의를 널리 펼치는 하나님나라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므로써 역사가 완성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선교가 종말에 완성된다. 이와같이 기독교선교는 종말론에 입각해 있다.

6. 근대서구교회의 선교

근대서구교회의 선교는 식민지 침탈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할 때 기독교 선교사들도 그들과 함께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은 서구의 근대도시들이 낳은 서양문명을 복음과 더불어 전파하였다. 결국 교회는 상업주의와 자본주의가 품고 있는 맘모니즘의 옷을 복음에 입혀서 비기독교권의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오류를 범했다.

서구의 근대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미개인으로 간주되었다. 교회의 선교는 그들을 근대문명으로 개화시키는 교육사업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때문에 교회는 서구의 제국주의의 침탈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흑역사를 남겼다. 예수를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예수를 선포한 것이다. 이는 그 전도행위 속에 도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과 뼈아픈 회개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신학은 성서에 나타난 도성의 신학을 다시 읽어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도시농어촌선교를 위한 신학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성서의 성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사회에 대한 대안사회로 제시하는 인문학적 연구와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성서를 다시 읽을 때, 기독교 선교신학을 재정립하는 절호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서구선교신학의 추종자들이다. 서구교회의 선교신학을 극복하고 성서의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선교신학의 정립이 없이는 서구교회가 밟아온 오류를 답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선교사, 도시문명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창조세계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는 선교사,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일하는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시키려고 일하는 선교사, 도성의 문명에 종속된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선교사, 말씀사역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리스도(고후4:4)를 삶으로 증언하는 선교사, 올바른 창조신학과 복음으로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성서적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참된 선교사일 터이다.

나가는 말

율법서(토라)는 하나님, 세계, 인간, 죄, 자연과 문명, 대안문명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교회, 소통의 회복,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친다. 죄의 역사를 이어가는 도시국가의 전개상을 예언서(느비임)는 보여준다. 도시국가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척하고 심판을 선언한 예언자들의 삶을 예언서는 그린다. 우상숭배의 도성문명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도성의 대안문명을 대망하는 예언자들의 선포가 예언서에 있다. 타나크의 제삼부인 커투빔에서 세상의 우상숭배를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가 적혀 있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승에서 누리는 복된 축제의 시간들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증언하는 역사의 해석이 들어 있고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의 힘찬 미래가 펼쳐진다. 이와 같이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하는 책이다. 따라서 성서에서 피어난 꽃인 교회도 시작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궁행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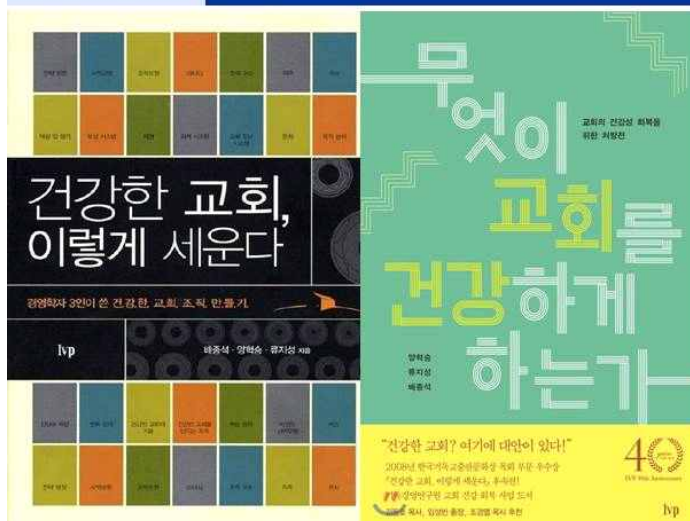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의 선교역사에서 실패의 요인을 상세히 규명하고 그 대안을 성서의 신학에서 찾아내어 올바른 선교신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향해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해외선교는 종말론적 행위이다.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의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주의가 세계의 현실을 지배하는 현실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발붙일 틈이 없다. 폭력을 기초로 딛고 서 있는 국가라는 '세상'을 이기는 평화의 행진이 곧 교회의 선교이다.

“교회변화를 위한 동력 만들기”

양혁승 교수(연세대), 배종석 교수 (고려대)

경기노회
2018.7.10

건강한 교회: Why? What? How?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jongbae@korea.ac.kr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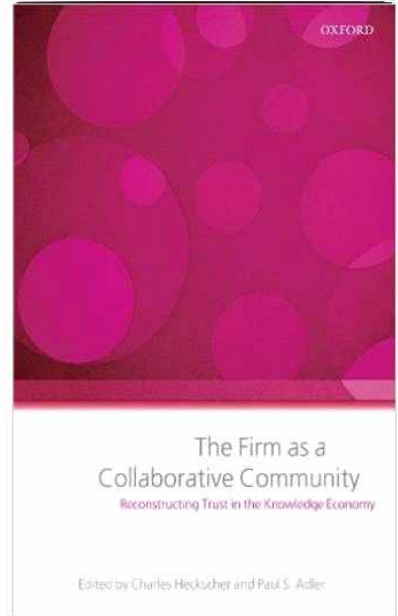
교회와 기업

- **교회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영역인가?**
 - 교회교육?
 - 리더십?
 - 정직과 신뢰 등의 가치?
 - 효과적인 정치제도, 조직구조?

- **기업은...**
 - 최근 경영(학)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몇 가지 주제들
 - 사랑, 영혼, 신뢰, 가치, 투명성, 정의, 섬김, 책임
 -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이 세대의 사람들"
 -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 16:8)

최근 경영학에서의 화두

- **영성**: Stanford 대학의 Jeffrey Pfeffer
 - *Business and the Spirit* (2003)
- **행복**: Harvard Business Review 2012년 1월호의 표지 타이틀
 - 'Happiness' (Fox, 2012)
- **공유가치**: Harvard 대학의 전략담당 교수 Michael Porter
 - *Creating Shared Value (CSV)* (Porter & Kramer, 2011)
- **영혼**: 마케팅의 구루 Philip Kotler
 - *Marketing 3.0: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the Human Spirit* (Kotler et al., 2010)
- **사랑**: Sisodia et al.의 저서
 - *Firms of Endearment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 받는 기업으로)* (2007)
- **공동체**: 기업은 공동체
 - *The Firm as a Collaborative Community* (Heckscher & Adler, 2006)



4

일반조직과 교회조직



- 사람들이 만든 제도
- 개인과 제도의 상호적 관계
- 목적과 수단



-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만든 제도
- 하나님의 통치와 머리 되심
- Share in, share with, share out

- 전체의 유기적 통일체를 위해 개인들이 필요
- 개인에게는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속성의 창출
-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이 개인들을 지배하는 법칙을 통제

5

교회의 현실은?

- “은혜”라는 이름으로
 - “은혜롭게 합시다”
 - “은혜 받았습니다”
- “성직자”라는 명분으로
 - 축구 하다 다친 목사, 루터의 재발견
 - 목사가 **문제**이고 목사가 **답**이다 (경남의 어느 교회)
-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 끝없는 “(교회)조직”에의 충성을 요구
 - 예배당 중심의 종교생활 강요

6

What?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리가 출발이다

- 공동체와 조직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 성경에서 도출된 핵심적 원리가 바르게 적용되어
- 교회다움을 위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도화된 공동체

-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내고 추구해야 함

- A4 용지 5장 짜리 정리 → 한 페이지 짜리 요약 → 한 문장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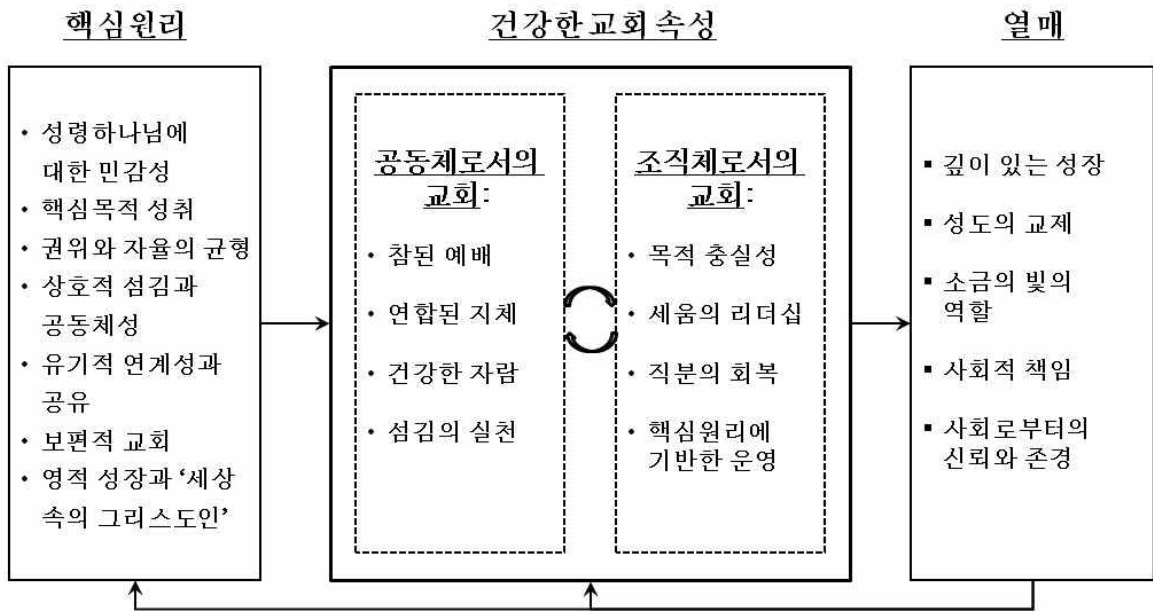
건강한 교회에 대한 핵심리더의 공유가 필요

- 누가 핵심리더인가?
- 건강한 교회에 대해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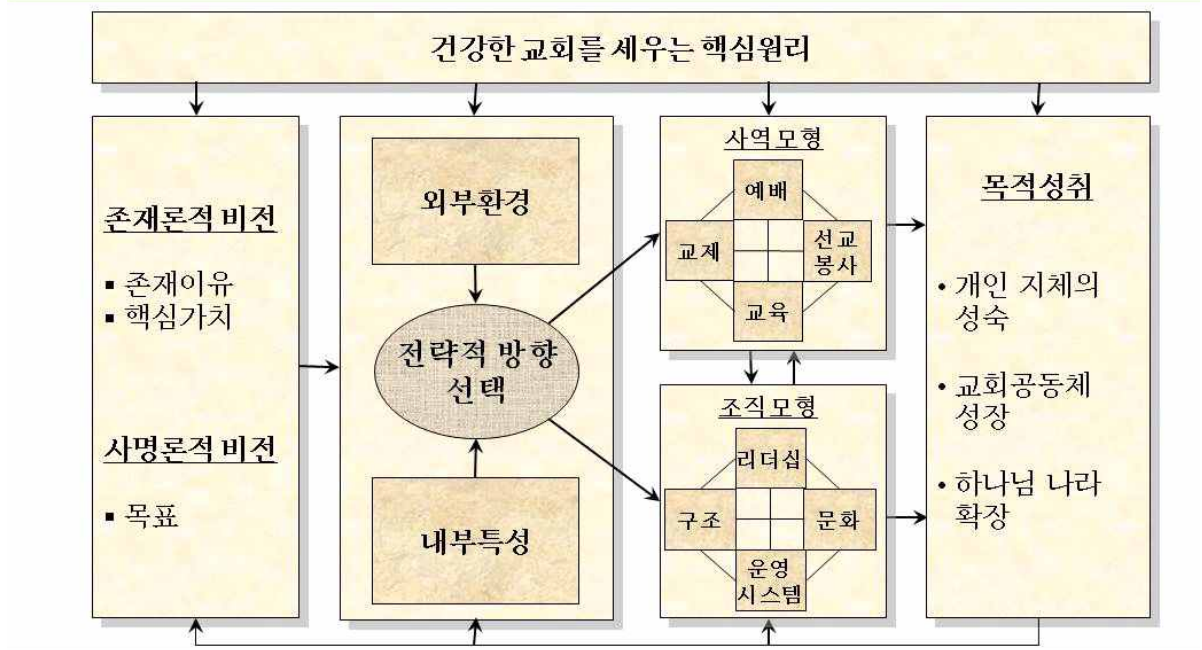
-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 핵심리더 공부: [갈렙성경공부]

9

건강한 교회 분석틀 (1)



건강한 교회 분석틀 (2)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곱 가지 핵심원리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문제	건강한 교회의 핵심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불인정	성령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	핵심목적의 성취
목회자의 당회 중심의 교회 운영	권위와 자율의 균형
직분제도의 세속화	상호적 섬김과 공동체성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교회운영	유기적 연계성과 공유의 원리
내부지향적이며 개교회주의	보편적 교회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 성장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2

핵심원리의 선택

- 개별 교회는 7개의 원칙의 선택 혹은 변형해서 사용 가능
 - 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 목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교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 사례
 - 권위와 자율의 균형
 - 투명한 의사결정과 재정사용
 - 직분자 선출의 엄격성

13

How? 전략적 측면

비전이란?

- 존재론적 비전: 교회의 존재이유와 관련된 궁극적 목적과 본래적 의미
 - 성취하기 어렵지만 **별**과 같은 길잡이 역할
 -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런 교회**”
- 사명론적 비전: 교회가 이뤄갈 거대한 목표
 - 온 구성원이 힘을 함께 쏟으면 이뤄낼 수 있는 **높은 산**과 같은 목표
- 이슈
 - 이 둘 중 어떤 형태를 취해도 큰 상관은 없음
 - 목회자 개인의 목회비전과는 구분되어야 함 (일치할 수도 있음)
 -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음

비전의 역할

- 잘 보이지 않으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함
- 명확한 길잡이, 방향을 제시하여 교인들이 같은 곳을 보게 하고 같은 것에 집중하게 함
- 공유된 비전은
 - 교인들이 교회의 목적과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 꿈과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 헌신과 강한 동기를 부여 받아 참여와 협력을 불러 일으킴

16

비전 예시

- 한국 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인 제자들을 통해 공교회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이다. (더불어숲동산교회)
- **우리 시대에 개혁교회의 이정표가 된다.** (서울중앙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제자공동체** (서울서문교회)
 -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교회
 -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교회

17

전략적 방향은?

- 교회의 **내부적인 상태**를 충분히 파악
 - 교인의 특징 (연령대별 구성, 주거지 분포, 신앙교육의 정도 등)
 - 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특징
 - 교단의 전통과 방향
- 교회의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파악
 - 교회의 지역사회의 특성
 - 한국교회의 경향성
 - 한국사회의 변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개인주의화 등)

18

전략적 방향은?

- 전략적 방향
 - 내부적인 약점을 극복하면서 내부적 강점을 가장 잘 살려서 외부 환경의 위협요인을 막아내면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발굴과 시행
- 교회에서의 비전과 전략 (기업과 다른 측면 유의)
 - **향상(promoting)**과 **보존(preserving)**의 구분 (사역 잘 하기 위해 구성원을 희생시키지 않음)
 - **선택과 집중**의 전략과 **온전한 모습의 완성**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

19

전략적 방향의 예시

- 내부상황
 - 청년이 많음 (200/550)
 - 지적이고 사회봉사에 대한 열정은 있음
 - 전도는 잘 못함
 - 대학부 농촌봉사의 한계

- 지역사회 특성
 - 가정집이 없는 서울도심
 - 근처에 쪽방과 노숙자

- 전략적 방향
 - 노숙자와 쪽방 선교
 - 하기봉사, 더함이 사역

20

How? 진단과 처방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지 CHEQ I의 구성 (1)

구분	진단 내용	세부 내용 (괄호 안의 숫자는 설문 문항 수)	문항수
개별 요소	핵심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령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의 원리 (2) • 핵심목적의 성취 원리 (2) • 권위와 자율의 균형원리 (2) • 상호섬김과 공동체 원리 (2) • 유기적 연계성과 공유의 원리 (2) • 보편적 교회의 원리 (2) • 영적성장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원리 (2) • 핵심원리 총괄평가 (1) 	15문항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의 적정성 (1) • 비전의 명확성 (1) • 비전 공유 정도 (1) • 비전 실천 정도 (1) • 비전 달성 정도 (1) • 전략적 방향성 (1) • 비전과 사역의 정합성 (1)* • 비전과 조직의 정합성 (1)* 	8문항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역(예배, 선교, 봉사, 교제, 교육)과 비전과의 정합성, 그리고 5P (purpose, program, people, process, product)를 중심으로 진단 • 사역간의 정합성 (1)과 사역과 핵심원리와의 정합성 정합성 (1)* 	32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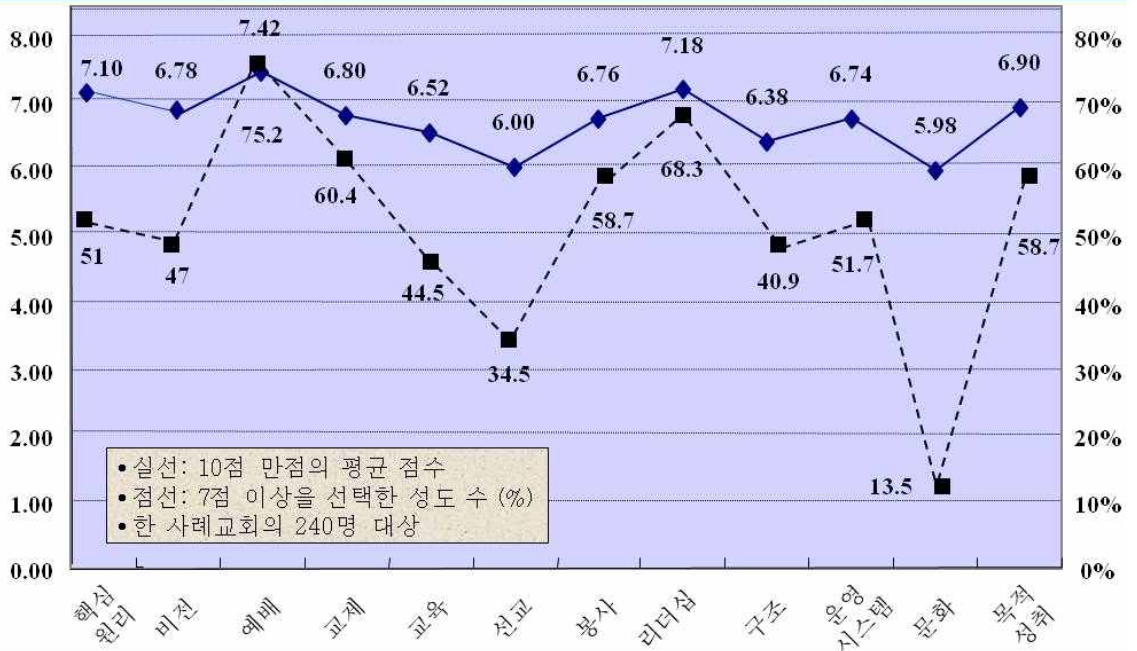
22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지 CHEQ I의 구성 (2)

구분	진단 내용	세부 내용 (괄호 안의 숫자는 설문 문항 수)	문항 수
개별 요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구조: 부서화 (1); 조정과 통합 (1); 의사결정 (1); 핵심원리 반영 (1); 핵심사역 촉진 (1) • 조직리더십: 자기세우기 (1); 사람세우기 (1); 비전세우기 (1); 조직세우기 (1); 리더선발과정 (1) • 운영시스템: 직무관리 (2); 인사 및 역량관리 (2); 평가 및 보상관리 (2); 재정 및 회계관리 (2); 정보 및 홈페이지관리 (2) • 교회문화: 핵심원리 반영 (1); 성경적 가치/핵심가치 반영 (1); 문화의 공유정도 (1); 문화의 영향력 강도 (1); 복수문화 관리 (1) • 조직모형 네 가지 요소간의 정합성 (1)* 	26문항
	목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목적성취 여부 (7): 하나님 나라, 양적 성장, 질적 성숙, 성도의 영적 성장, 거룩한 공동체, 행복한 성도, 소속에 대한 자부심 	7문항
전체문항			88 문항

23

CHEQ I의 결과 (J교회 전교인 대상)



건강한 교회 24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지 CHEQ II의 구성

진단내용	세부내용	문항 수
1. 교회 배경과 현황	(1) 교단; (2) 지역; (3) 설립연도; (4) 목회자 수; (5) 성도 수; (6) 성도 수 추이; (7) 개척한 목회자 여부; (8) 성도 거주지	8 문항
2. 간단한 교회 건강성 진단	(1) 성도들의 영적 상태; (2) 분위기; (3) 갈등 여부; (4) 지도자 신뢰와 존경 정도; (5) 행복감; (6) 교회 떠나는 자; (7) 이웃사랑; (8) 교회건강에 대한 기대; (9) 교회다움; (10) 당회원간 관계; (11) 교역자간 관계	11 문항
3. 건강한 교회 속성	(1) 참된 예배; (2) 연합된 지체; (3) 건강한 사람; (4) 섬김의 실천; (5) 목적에 충실한 교회; (6) 섬김의 리더십; (7) 직분의 회복; (8) 핵심원리에 기반한 운영	40문항 (각 속성별 5문항)
4. 교회건강성 영향 요인	여덟가지 속성에 대한: (1) 목회철학; (2) 교회문화; (3) 전략	24문항 (3 요인별 8가지 속성)
5. 건강한 교회의 열매	(1) 행복한 성도; (2) 좋은 평판; (3) 새신자 증가; (4) 목회자와 성도간 건강한 교류; (5) 본질적 목적의 달성; (6) 예수님의 뜻의 온전한 실현; (7) 교회다움을 유지	7문항
전체문항		90문항

25

CHEQ II 설문조사 결과: 간단한 건강 진단^{III} (2013년)

간단한 교회 건강성 진단	긍정응답비율*	평균
1.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63.8%	3.95
2. 교회 분위기가 밝고 활기가 넘친다.	72.8%	4.02
3.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내 갈등이 없었다.	43.8%	3.66
4. 교회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81.1%	4.27
5. 성도들은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생활에서 비교적 행복감을 느낀다.	80.0%	4.11
6.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24.4%	3.26
7. 성도들은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37.7%	3.53
8.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88.9%	4.34
9.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한다.	73.3%	4.04
10. 목회자와 장로(혹은 이에 준하는 교회리더)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60.0%	3.86
11.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56.7%	3.83
전체 평균	62.0%	3.89

^{III} 이 표의 결과는 개별교회의 진단결과가 아니고 설문에 참여한 교회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 긍정응답비율은 교회별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점과 5점 사이의 값을 얻은 교회의 비율을 말한다.

26

CHECK II를 사용한 한국 교회 전체 설문조사 결과

진단 차원		긍정응답 비율 (%)	평균	진단 차원		긍정응답 비율 (%)	평균
간단한 건강성 진단		62.0	3.89	교회 조직체	직분의 회복	53.1	3.77
교회 공동체	참된 예배	66.3	4.02		핵심원리에 기반한 운영	44.3	3.60
	연합된 지체	45.4	3.63	영향 요인	목회철학	63.0	3.93
	건강한 사람	41.6	3.52		성도의 공유	53.8	3.79
	섬김의 실천	48.1	3.63		수행 전략	45.6	3.66
교회 조직체	목적 충실성	44.8	3.63	교회의 열매		61.4	3.88
	세우는 리더십	48.2	3.69				

27

질문

- 목회자로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핵심리더와 공유하고 있습니까?

- 우리교회의 **핵심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잘 지킬 수 있습니까?

- 우리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공유되어 있습니까?
 - 열정을 모으고 있습니까?
 - 참여와 헌신으로 이어집니까?

- **전략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 내부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 외부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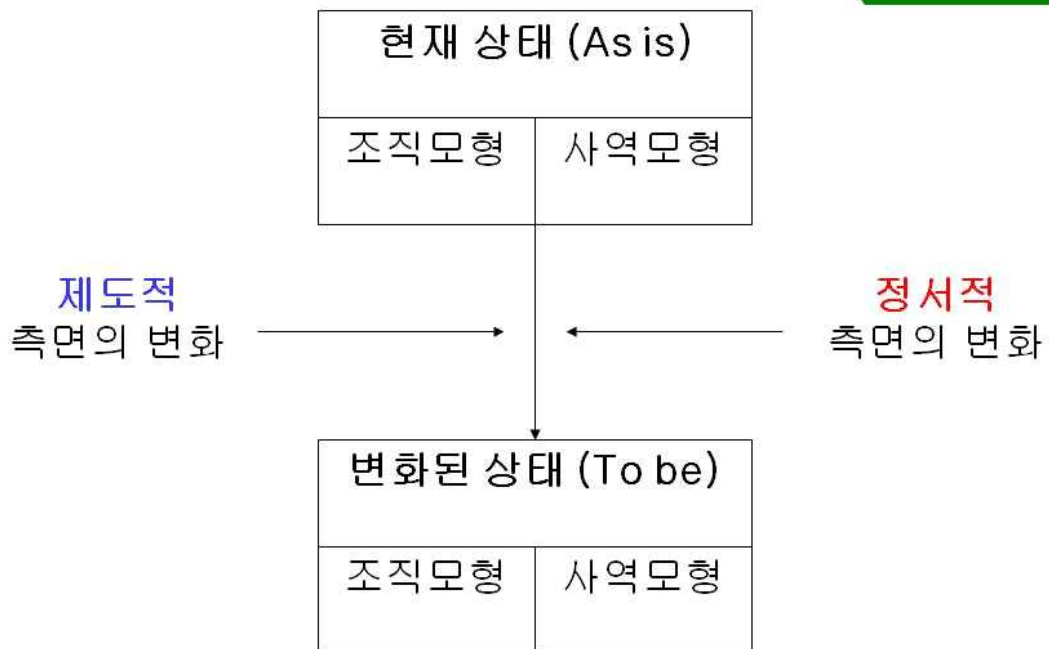
변화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양 혁 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변화관리의 두 가지 측면



2

- 제도적 측면

: 현재의 조직모형이나 사역모형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

- 정서적 측면

: 조직 구성원들의 신념체계, 사고방식, 태도, 행동양식, 사역수행방식 등을 조직이 지향하는 변화노력의 방향에 맞춰 바뀌어나가는 것

3

침체된 교회의 일반적 특징

- 변화에 둔감: Frog in the Pot
- 과거회고적 경향 (vs. 미래지향적 경향)
 - 전통(관습)의 힘이 작용: 배고픈 원숭이 실험
 - 인지(사고)에너지 절약방안으로서의 습관/heuristic
- * 성인의 뇌(몸무게의 2%)가 에너지의 20% 사용
- 일단 침체에 빠지면 회복이 더딤
- 젊은 일꾼들이 부족함: 탐색활동 토양이 미흡
- 구성원들 상호간 신선함 부족
 - : 일반적으로 내부구성원에 의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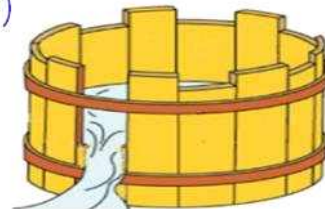
변화의 동력 찾기

- 공유된 **위기의식**
→ 새롭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
- 교회 내 약한 고리 보완: **최소율의 법칙** ▶
- 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리더들의 준비 → **신뢰** 구축
 - 교회공동체에 대한 현실적 이해
 -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공유
-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에 대한 믿음

5

응급처방: 최소율의 법칙

- 같은 밭에서 자라난 농작물의 크기가 왜 서로 다를까?
- **최소양분율의 법칙**(law of minimum nutrient: 독일 화학자 Justus von Liebig, 1803-73)
농작물의 크기 차이가 과잉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양분, 수분, 온도, 광선 등과 같은 필수요소 가운데 공급이 가장 적은 요소, 즉 제한요소(limiting factor)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발견
→ **최소율의 법칙**(law of minimum)



- 조직의 위기는 조직 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발생
(사탄도 우리의 약함을 타고 들어옴)

6 ▶

리더들의 준비: 자기 세우기

1. 올바른 신앙관과 교회론
 - God-centered Faith (vs. self-centered faith)
 - 선교적 교회론
2.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부터 실천하기
(서로 사랑하기, 소외된 이웃 돌보기, 범사에 감사하기 등)
 - 한 걸음씩(one step at a time) 주님의 인도 따라!

7

리더들의 준비: 타인 세우기

1. 사람들의 본성/심리에 대한 이해
 - 쾌락적응(Hedonic Adaptation) 현상 ▶
 -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증(Adult Child)
 - **비교의식의** **뒷**에 빠지기 쉬움
- * **인간의 본성**은 중력과 같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극복 가능(예, 로켓 발사)

8

리더들의 준비: 타인 세우기

2. 지체들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 공유

-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 곤고한 자(롬 7:24)
- 지체들은 기대/비판/비교의 대상이 아닌,
이해/공감/용납/인정/사랑의 대상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엡4:32)

우리 모두 빛진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
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니”(마 18: 33,35)

- * 판단은 사람을 방어적이 되게 하나,
사랑과 용납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9

Hedonic Adaptation 극복하기

- 인간의 기본 속성 중 하나: 감동/만족을 지속하기 어려움
행복: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보다 얻을 것을 기대할 때가 더 큼
- 영적 활력 유지방안 필요: 영적 도전
 - Paradigm Shift를 통한 새로운 Journey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임
 -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 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여정
하나님의 주권/인도하심에 믿음/순종으로 반응하는 탐험적 삶
 - 영적 도전이 중단될 때 과거회고적 신앙에 머물게 됨
 - 영적 도전의 삶을 산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 영적 청년
(아브라함, 모세)

10

교회공동체에 대한 현실적 이해

-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under construction!)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엨 2:22)
- 서로에 대한 **이상적 기대치**는 금물
- 믿음의 성장은 **허들(hurdle) 경기**와 같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변 인물과 환경을 보라!
(예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등)
-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실망하기보다,
그들과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journey)**으로 이해
- **사랑의 공동체**는 실현된 현실이기보다는 **이뤄가야 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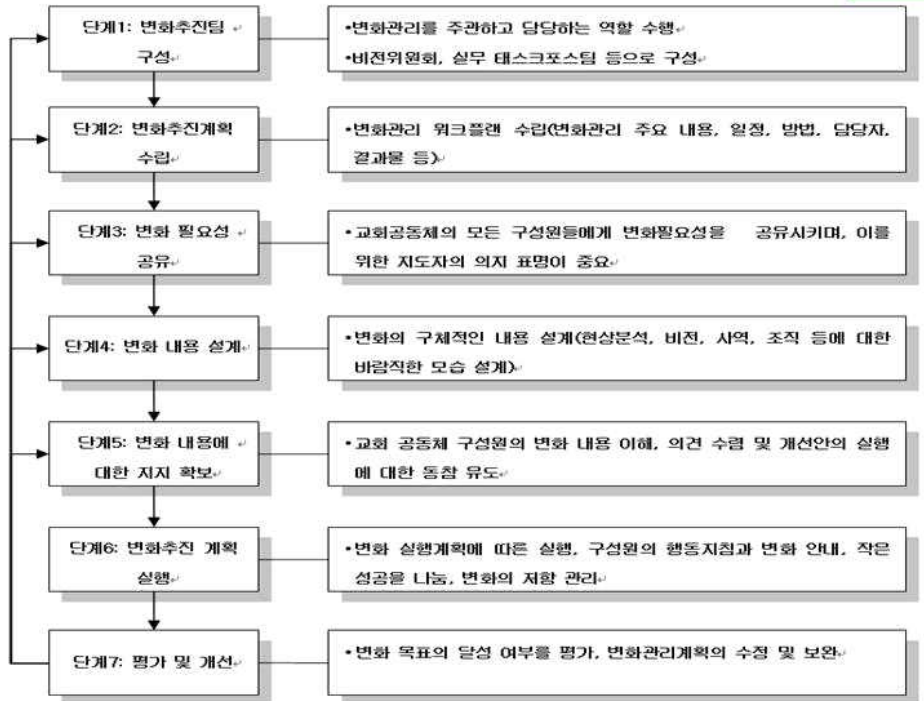
11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

-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문제 바라보기
: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패러다임**을 바꿀 계기
-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내 **기도/믿음**을 키울 계기
- 사람에게 대해 실망할 때: 내 **품/사랑**을 넓힐 계기
- Character Build-up의 새로운 **Journey**
“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경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12

변화관리의 7단계



13

변화의 필요성 공유

- 변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격차(gap)가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
- **양날의 칼**: 현재의 문제점 공유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 축적되어 있다면 변화노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교회 내에 갈등과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점들을 확산시켜 굵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14

변화추진에 대한 지지 확보

-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
: 기존의 권한관계나 영향력 판도에 있어서 변화가 초래될 때 그러한 면에 민감한 구성원들의 찬성·반대 의견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됨
- 변화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주요 직분을 맡고 있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변화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
- 변화추진과정에서 리더들이 **변화추진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추진의 주체**로서 변화노력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때 변화추진 내용에 대한 지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추진 내용의 실행단계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15

변화추진 내용 실행

- 구체적 행동지침 혹은 안내서를 제공
: 새로운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익숙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효율성의 덫**: 익숙한 방식과 관행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에 비해 당장에는 더 나은 효율성을 다져 다 줄 수 있음.
- **가시적인 작은 열매 만들기**: 단기간에 특정 부문에서라도 가시적인 변화노력의 열매들을 맺어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그 열매를 맛보고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power of small wins**)

16

변화관리에서 유의할 점

- 영적 계기 마련하기: 성도들 사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헌신을 고백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비전이란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가능함.
- 담임목회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변화옹호자의 입장에서 변화과정을 선도하고 확실하게 지원해야 함. 담임목회자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함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할 때 변화노력의 진정성이 확보됨.
- 구성원들의 저항심리 극복하기: 저항심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함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보다 큰 대의(大義)—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교회공동체 구축—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노력에 참여적 자세와 협조적 태도를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17

변화관리에서 유의할 점 (con'd)

- 구성원들을 변화의 주체로 세우기: 정서적 측면의 변화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에 대한 의구심**과 **저항심리**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방향 그리고 변화 이후의 미래상에 대해 지지하고 변화노력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임.
- **조급증** 극복과 **일관성 유지**(과거로 회귀하려는 **관성** 극복): 구성원들이 새로운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업무수행방식 등을 몸에 익힘으로써 새로운 행동규범과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일관성** 있는 집중적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제도를 조직문화로 **승화시키기**: 과거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교회공동체 안에 뿌리내려 정착되기까지 변화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18

“목회자의 리더십”

이덕진 장로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1

2018 경기노회 창의적 마을목회아카데미

목회자의 리더십

2018. 7. 10

이덕진

관리자와 리더

Manager :

“Doing things right.”

Leader :

*“Doing **right** things right.”*

*“Putting **first** things first.”*

- Peter Drucker

리더의 평생습관 – **LEAD**

평생 학습 : **L**earn

평생 탐구 : **E**xplore

평생 실천 : **A**pply

평생 혁신 : **D**ifferentiate

- 학습 : 가정, 학교, 직장, 삶 전체에서 평생 지식과 교훈을 얻기
- 탐구 : 아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머리에서 가슴으로
- 실천 : 뜻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것이 지식인
- 혁신 : 실제 결과를 보여주기, 자신과 팀과 사회를 바꾸어가는 사람!

- Peter Drucker

변화를 만드는 리더십 – 6 Qualities

- 비전 공유 : *Visionary*
- 마음 공유 : *Inspirational*
- 혁신 능력 : *Innovative*
- 바른 결정 : *Decision Making*
- 협력 창출 : *Collaboration*
- 사람 육성 : *People Development*

- K-C Corporation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 진정한 “지식인”

1.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 *Mission / Calling*
2. 나의 **고객/이웃**은 누구인가? : *Customer / Neighbor*
3. 그가 원하는 **꿈/가치**는 무엇인가? : *Dreams / Values / Needs*
4. 나의 **성과/결과**는 어떠한가? : *Performance / Results*
5.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 *Strategies / Plans*

- 사명 : 나는 왜 사는가, 목숨을 드릴 곳은 어디인가?
- 고객 : 내가 섬길 대상은?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구체적으로 누구?
- 섬김 : 그의 꿈, 중요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은 ?
- 성과 : 그의 필요를 위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 계획 : 더 잘 하려고 내가 준비한 계획은?

- Peter Drucker

오늘의 한국 물질 vs 하나님 나라

1. 돈 : "인생의 성공에서 돈이 가장 중요" 국민의 70% - 세계 1위 (OECD)
2. 행복지수 : "나는 행복하다" 국민의 7% - 세계 최하위
3. 부정직: 부패지수 - 세계 1위
4. 분열 : 이념, 빈부, 세대, 지역간 사회갈등지수 - 세계 2위
5. 일자리 : 청년 실업률 (11%), 매춘 (가임여성의 8%) - 세계 최고 수준
6. 일의 질 :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85%) 생산성 - 선진국의 60%
7. 사람의 가치: 자살율, 우울증, 교통사고, 산재사고, 초장시간 근로 - 세계 1위
8. 출산율 : 초저 출산국 (1.17명) - 세계 최저 수준
9. 그리스도인 : 대한민국 국민의 28% (개신교 20%, 천주교 8%)
10. 기독교의 신뢰도 : 20%, 불신을 50% (부정직과 비윤리)

"문화 회복을 위한 교회의 부흥 (갱신)

***Revitalization of the Church
to Renew the Culture "***

- TW (Transform World 세계 변혁) 포럼 2020 비전

세상을 바꾸는 성도

1. 극복해야 할 이원론

- 성 / 속 (*sacred / secular*) - 교회와 일터
- 주일과 평일 - 성직자와 비성직자
- 기독 경영과 비기독 경영 - 높은 가치와 저급한 가치

2. 세상 문화에서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 / 성품

- 정치와 경제 : 정직, 신실, 통합, 사람의 존엄
- 교육과 과학 : 진리, 창조, 희망, 미래세대
- 예술과 예능 :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양함, 아름다움
- 언론 미디어 : 진실, 경건, 분별력, 유익
- 가정 :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곳, 하늘 나라가 임하는 곳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If necessary, use words.”***

**“복음을 항상 설파하라.
꼭 필요할 때엔 말로 하라.”**

- *St. Francis of Assisi*
- *Mother Teresa*
- *Chuck Colson*
- *Brennan M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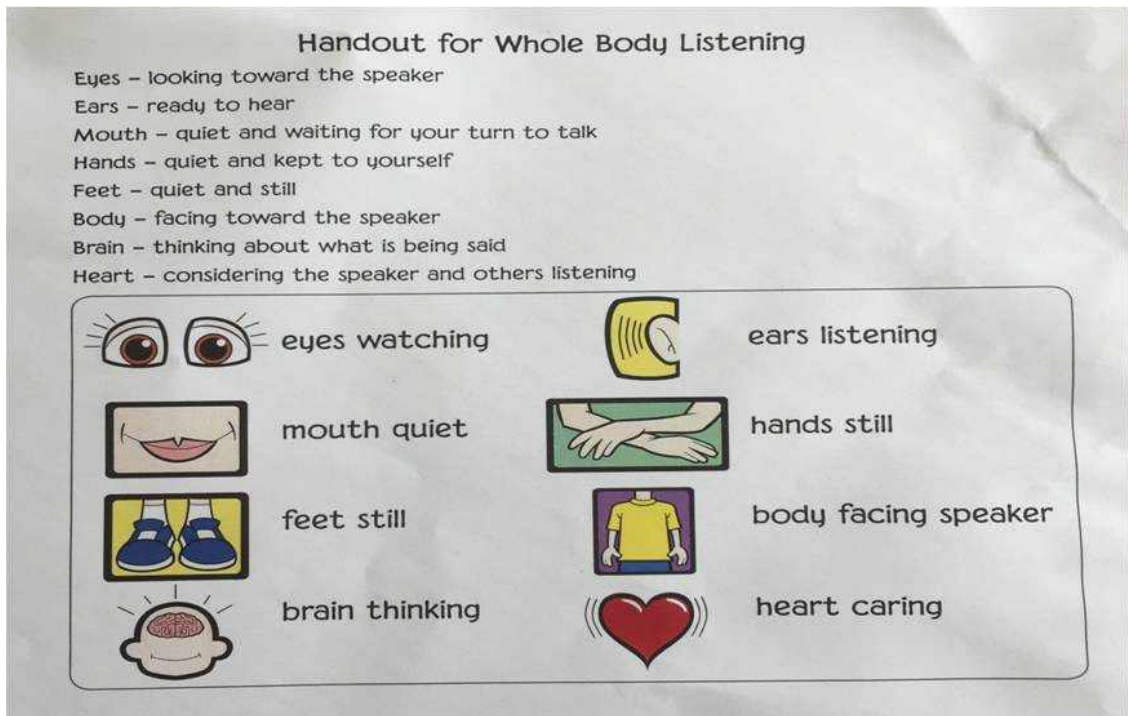
성화와 섬김의 책임 – 목회적 리더십

에베소서 4:11-13 (목회 사명)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와 품성 모든 것의 출발점

어느 유치원의 듣기 훈련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학습들”

- 나눠 가져라
- 페어 플레이
- 때리지 마라
- 자기가 어지른 것은 자기가 치워라
- 남의 것 가지지 마라
- 남의 맘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라
- 먹기 전에 손 씻어라
- 골고루 다 해라
- 오후엔 한숨 자라
- 차 조심해, 함께 손 잡고, 떨어지지 말고
- 세상 창조물의 신비를 보아라

- Robert Fulghum,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

“전인적” 교육을 위한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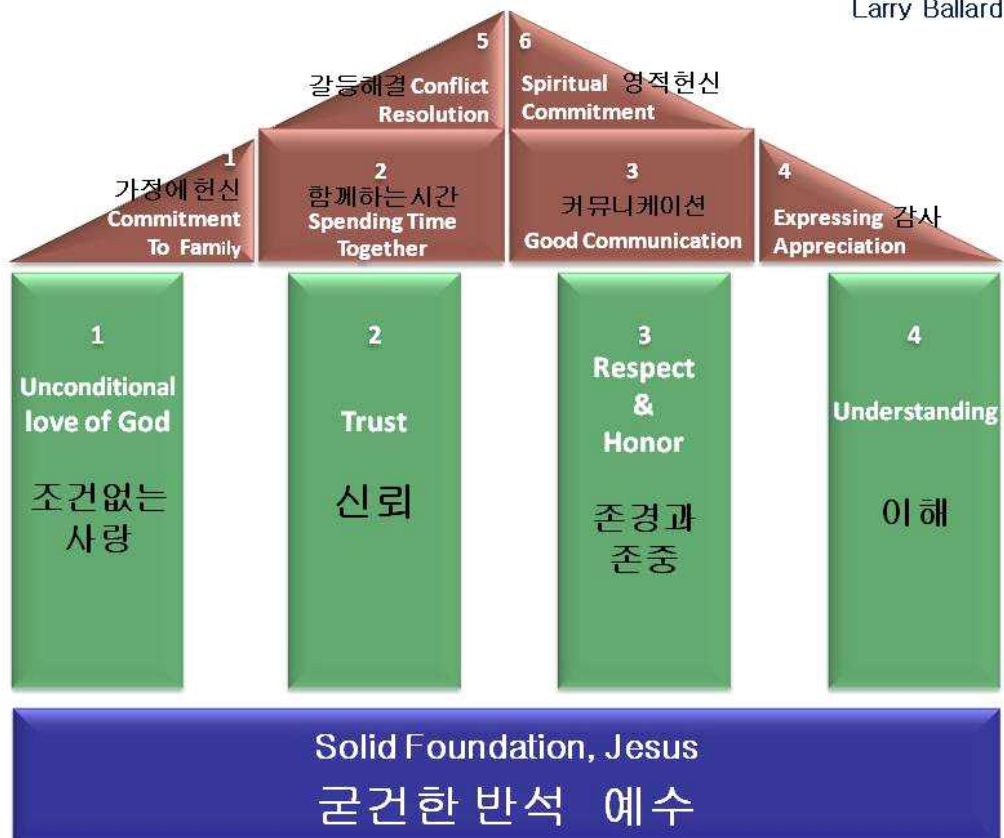
1. 커리큘럼 중심 교육, **plus** 삶의 여정으로 체득해 가는 교육
2. 학교교육, **plus** 일터에서의 배움, 그리고 평생학습
3. 한 분야의 전문가, **plus** 둘 이상의 세상에 사는 길
4. 개인의 성공, **plus** 관계의 성공을 위한 교육 (*Relational Education*)
 - 1) 건강한 “관계” : 이해, 신뢰, 존중 바탕의 상호의존, 목표공유, 유기적기능
 - 2) 관계에서 성공하는 성인으로
 - 가족간 부모, 자녀, 형제로
 - 학생, 교사, 학부모간
 - 하나의 시민으로, 직업인으로
 - 기업가로, 파트너로, 지도자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의 제자화 - 부모중심 교회교육



크리스천 가정 (Building the House of Oneness)



교회를 세우는 성도

평신도 사역 비전

	모이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예
A 교회	<i>Great</i>	<i>Great</i>	
B 교회	<i>Great</i>	<i>Mediocre (보통)</i>	

“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calling), 보내신다 (sending).
 21세기의 교회는 이를 위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ordinary Christians)
 동원하고 (mobilize), 훈련하고 (equip), 역할을 나누고 (empower),
 지원해주는 (support) 교회이다.”

- Robert Slocum, "Maximize Your Ministry"

평신도의 돌봄사역 - *Care Ministry*

“PACE* 돌봄 사역”

Prayer	기도하기
Available	시간 내기
Contact	만나고 접촉하기
Example	삶의 본이 되기

-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돌보는 사역입니다
-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 긍휼한 마음과 가까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 Melvin Steinbron, *“Can the Pastor Do It Alone?”*

돌봄사역의 대상 - 삶의 모든 영역

1. 교회 안에서

- 1) 사랑방 (셀, 목장) 식구
- 2) 새가족 정착과 양육
- 3) 교회학교, 찬양대, 모든 사역팀

2. 교회 밖에서

- 1) 가정에서
- 2) 일터에서
- 3) 기업에서

“나의 속사정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 한국 세계 최하위

일터를 섬기는 성도

일터와 기업경영 - 드러커의 경영학

- 경영학은 **사람**에 대한 것, **인문학**이다
- 직원들을 높은 지적, 윤리적 수준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
- **윤리적 기초**가 없이는 **직원, 고객, 사회에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 품성과 윤리가 결핍된 리더는 기업의 생명인 **사람과 영혼과 성과를** 망친다
- 경영자가 자신과 직원의 **강점, 개성, 은사**를 최대 사용할 때 전체가 성공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의 문제들을 다스려 **경제적, 생산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망

1.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 가는 것 (*Social Justice*)
2.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Honesty & Evangelism*)
3. 전문성을 갖추어 탁월하게 일하는 것 (*Skills & Excellence*)
4. 문화 속에 뛰어들어 최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Influence on Culture*)
5. 최대한 수입을 올려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
(*Make Money & be Generous, as much as possible*)

- Timothy Keller, "Every Good Endeavor (일과 영성)"

일과 영성 (Center for Faith & Work) 프로그램들

1. 강연, 문화클럽 행사, 복음과 문화 집회
Lectures, Culture Club Events, Gospel & Culture Conference
2. 직능그룹들, 수련회와 강의, 서적 출판, 작품전시회와 공연
Vocation Groups, Retreats & Classes, Literary Publications, Art Exhibits & Performances
3. 리더 훈련,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Leader Training, Entrepreneurship Initiative
4. 고섬 (뉴욕) 펠로우십 : 전문 분야에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기적으로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 *Gotham (New York) Fellowship*

- Timothy Keller, "Every Good Endeavor (일과 영성)"

회사 사례- YK

1. 특징

- 존경받는 기업 (*Most Admired Company*) : 사원, 주주, 고객, 사회, 환경
- 아시아 / 한국최고의 직장 (*Best Employer*)
-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1위
- 윤리, 환경, 안전, 품질, 생산성, 평판 초우수 기업
- 뉴패러다임 경영모델 : 300여 기업

2. 성경적 리더십

- | | |
|-------------------------------|-------------------|
| - 윤리 경영 / 투명 경영 | - 신뢰 경영 / 통합 경영 |
| - 평생 학습 / 지식 근로 | - 자율 경영 / 참여 경영 |
| - 환경 경영 / 품질 경영 | - 사회적 공헌 / 사회적 책임 |
| - 평생 혁신 / 고성과 조직 | - 지속 가능 경영 |
| - "3H 경영" : Hand, Head, Heart | |

FAT – 직장이 구해야 할 인재상

Faithful : 성품/인격을 갖춘 사람

Available : 섬김의 태도 가진 사람

Teachable : 평생 성장할 사람

- Faithful : 신실한 성품, 도덕적 우위, 겉과 속이 같은, 잘 정돈된 가치관.
- Available : 섬기는 습관/자세가 된 사람, 자원하는 태도, 도움이 되는 사람
- Teachable : 평생 배우며 성장할 사람, 그런 겸손과 의욕을 가진 사람

- 이덕진

21세기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성화와 섬김의 책임 – 목회적 리더십

에베소서 4:11-13 (목회 사명)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감사합니다

“지역의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회학교”

배경임 국장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I. 위기에 처한 학생들

오늘날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 문제 등이 사회의 전면에 들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사회적 전면의 등장에는 2014.9.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같은 사회적 보호제도 신설을 통해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부정적인 이면이 함께 공존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의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성공을 바라보는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의 도태되는 학생들의 증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발생되는 더 큰 사회적인 빈곤, 매년 갱신되는 OECD 1위의 이혼율,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더욱 문제의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22위,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19세미만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33.9%, 2016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1,000명 중 17.1명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매년 사망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2014년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가해 장소의 80% 이상이 집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율이 8.5%에서 2016년 2차 조사에서 0.8%로 학교폭력에 있어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내 폭력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학교폭력이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5년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현황을 보면 2012년 조사 이래로 다문화 학생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나 9.4%가 차별을 경험하고, 11.2%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상위학교 진학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가출 청소년, 위기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 또한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돌봄과 관심이 더욱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온 사회가 함께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II.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설립과 발전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공교육현실의 개선을 고민하는 현장의 교육자들,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들, 좋은교사모임이나 아름다운 배움과 같은 교육 개선을 위한 단체들,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 그리고 책임 있는 교계의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각종 간담회와 학교폭력해결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해 방안을 구상하고, 지역사회의 교육문제 전문가, 현장 활동가, 민·관 관계자, 마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안들을 체계화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먼저 은평지역이 관내에 30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6개 중학교가 몰려있는 교육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발생률과 청소년 자살률, 결식아동비율이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지역의 빈곤상황과 겹쳐 더욱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은평지역의 교파를 초월한 14개 교회의 목회자들과의 지속적인 인문학 모임을 통한 은평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사회를 건강하게 돌보는 일은 종교가 해야 할 공공지원의 기본 영역’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접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과 이를 지원할 14개 교회를 양측으로 하여 2012년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육문제들은 아동들을 위한 일시적 프로그램만으로는 효율적인 예방, 치료,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주체가 되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따라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더불어 행복한 교육 만들기’라는 모토 아래 교육의 세 주체가 되는 학생·교사·학부모를 함께 돌보는 ‘학교 Care System’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교육현장의 리더들인 지역학교의 교장들과의 2013년부터 3년에 걸친 교장연찬회와 개별 미팅을 통해 지역 공교육 현장과의 유대감 형성 및 지역 공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needs들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장총최(통합), 해당구청, 교육청 등과 함께 사업을 위한 협의 및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13년부터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가장 먼저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교육

현장들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2013년 8월에는 대구교육연수원과 지역교사교육을 위한 MOU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과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청과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가 학교교육에 대한 MOU와 대구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5년 5월에는 정식으로 서울시소석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진행하였고, 그 동안의 활동과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인 더불어배움을 출범하였다.

Ⅲ. 활동내용과 특징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학교 Care System’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구청과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아래 관내 12개 중학교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동시지원프로그램인 ‘학교 Care System’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관내 17개교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다른 대표사업인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학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평구에서는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2017년 상반기 은평구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어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 학생 3,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장총회(통합)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교육현장의 리더들을 위한 서울시서부교육청관내 중등교장을 대상으로한 리더스클럽, 교장공감힐링캠프, 대구교육연수원과는 교장캠프와 교사예술힐링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과는 교사힐링캠프, 부산교육청과는 특수분야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현장을 위한 학생리더스클럽, 교육컨텐츠사업, 학년전환기교육, 자유학기제교육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영역도 경기도 교육청, 대구교육연수원, 부산교육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된 고양시 사업은 상반기에만 6개 학교 9개 프로그램을 진행 학생·교사·학부모 1,7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이러한 공교육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역교회들과 마을돌봄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지역학교-지역교회의 1:1 매칭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아동돌봄 토요학교인 마을형청소년케어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3개 지역-3개 교회-4개 학교-4개 반이 운영되다가 2017년에는 6개 지역-6개 교회-6개 학교-9개 반으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또한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인문학, 찾아가는 음악회, 어린이 캠프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사업이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오랜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현장의 파악 2) 지역사

회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의 형성 3) 현장의 필요에 따른 유연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문화적컨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4)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교적 목적에서 벗어난 마을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기능회복과 신뢰회복이 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실패는 교육현장을 매우 단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있다. 교육의 개선은 어느 한 분야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학생만, 교사만,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에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함께 있어야 하며 미래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거부감도 교육에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예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성과 공감 창의성에 관련된 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했다고 해도, 현실의 진학과 취업이라는 더 나아가서 고입경쟁, 대입경쟁이라는 학부모들의 생각 앞에서 금방 무너질 수가 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오랜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현장의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지향한다. 교육은 단순히 어느 한 단체의 노력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현장-관-시민단체-지역사회 등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많은 실패의 사례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의 책임의식 가져야 한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사업은 이러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대부분의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사업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대표 프로그램중 하나인 '학교 Care System' 그 사업단계에서부터 관인 구청 - 교육현장인 교육청 - 민간의 지원인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대표사업인 마을형청소년케어 사업의 경우 구청 - 학교 -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 지역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은 어느 한 단체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전체가 함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의 구조를 지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에의 협력과 지속성을 얻게 된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교육의 특징은 현장의 필요에 따른 유연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문화적컨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현장에 들어가보면 그 다양성에 놀라게 될 때가 많다. 같은 지역 내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지역 상황, 학교 상황 등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needs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의 needs가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관내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발된 지역과 구 지역의 차이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교육 지원 단체들의 경우 각 단체의 고유한 콘텐츠 외에는 유연한 지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다양한 강사풀과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는 각 지역의 필요에 대하나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공교육지원프로그램들은 △공교육 교사를 위한 ‘교사공감힐링캠프’: 교사로서의 자기 존중감 회복과 건강한 교제의 장을 제공 △‘청소년 공감프로젝트’: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키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친구들과의 소통·공감을 통한 유대 관계를 강화, △‘학생문화정서지원’: 다양한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회, 마임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화 문화예술지원 △‘찾아가는 학부모 아카데미’: 아이들을 키워가는 주체인 학부모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문학 교실 등으로 큰 테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실제적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학부모아카데미의 경우 다양한 주제 중에서 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주제로 강사진이 섭외되고 구성되며, 음악회의 경우도 국악, 클래식, 힙합,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를 선택하여 적용된다.

학생 공감페스티벌의 경우도 다양한 문화적컨텐츠들을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지식 주입식 강연이 아닌 마임·칼라테라피·연극·음악치료·무예 등의 다양한 시각적·촉각적·청각적인 체험과 함께 진행되는 문화적컨텐츠들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를 체험하고 느끼고 공감하게 됨으로 좀 더 실체화된 교육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발된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그 결과가 분석되며 지속적으로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과 공유된다. 이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이 분석되고 개선되어지며 관련 교육 data들이 수집되어 진다. 이와 동시에 강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현장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인문학 소양교육이 별도로 진행된다. 그리고 교육철학의 공감대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진다. 일례로 소통공감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마임교육을 학생들 스스로가 미래에 되어보고 싶은 꿈을 마임으로 직접 표현하고 이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마임교육’이나, 단순히 눈으로 보는 독서교육에서 벗어나 음악, 마임, 노래 등과 함께 읽는 ‘오감으로 읽는 독서’ 등은 그러한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좀 더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현장에서 진행되고, 개선되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VI. 마을공동체인 교회와 교육선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교적 목적에서 벗어난 마을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기능회복과 신뢰회복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걸림돌은 교회가 이에 대해 가지는 선교적 목적이다. 그

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가 가지는 선교적 목적은 공교육지원과 마을돌봄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의 ‘종교편향성’에 반감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크다. 이는 교회가 장소와 인력,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극단적 실례로 학교현장에서는 교계단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100% 이루어지는 사업일지라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교육지원단체로써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사업들에서 종교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함께하는 교회의 교역자들과 교회들의 이해와 공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를 떠나 ‘사회를 건강하게 돌보는 일은 종교가 해야 할 공공지원의 기본 영역’이라는 공감대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마을형청소년케어’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마을형청소년케어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장소제공, 교회의 지원과 함께 진행되는데, 참여하는 학생의 1차적 모집과 선발은 지역 학교가 담당한다. 앞서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공교육현장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6년 사업을 진행한 교회들은 초기부터 참여한 교회들로써 이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는 2017년 참여교회들이 은평구,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가 MOU를 통해 진행하는 ‘1개동 1개교 배움터’로의 인증과 더불어 참여 학교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회가 공적인 신뢰와 더불어 마을돌봄의 한 주체로써의 역할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교회들의 지원과 기독교인 강사들의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기독교인의 사회공헌과 새로운 기독교인재 양성의 양방향 시너지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어진 긍정적인 결과들은 다시 지역교회에 적용되어 마을형청소년케어, 주민인문학, 학부모인문학, 어린이 캠프, 음악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교회가 있는 지역의 필요에 맞게 그 결과가 공유된다. 이를 통해 지역교회들과 교인들은 단순한 지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동시에 프로그램의 수혜자이며 참여자가 될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연대감도 누리게 된다. 지역교회들과 함께 진행되는 지역주민인문학의 경우도 교회의 교인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은 지역교회 교인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유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생태계 안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V.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위한 교회역할

결론적으로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를 통해 민-관, 학교-지역사회-교회, 기독교-비기독교인이 서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협력과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성한다. 교회와 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써의 사명감 있는 헌신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된다. 교회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교적 목적과 배타성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봉사는 지역사회의 공감을 통해 신뢰와 참여로 돌아온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관과 공교육 현장의 참여도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임 있는 어른으로써의 교육 참여가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종교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와 예술가들의 협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의 우리의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온 마을’이라는 교육 생태계가 구성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의 구성은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의 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의 터는 단순히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학부모-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교육의 터가 된다. 이러한 공감과 신뢰로 이루어진 지역 교육 생태계는 교회의 공공지원 영역을 확고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학교와 지역교육현장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밑바탕이 된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이라는 모토 아래 지역의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과 기도와 지원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따뜻한 섬김을 통해 사역의 내용은 더욱 밝게 할 것이다.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의 이러한 교육선교의 대한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 교육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모형으로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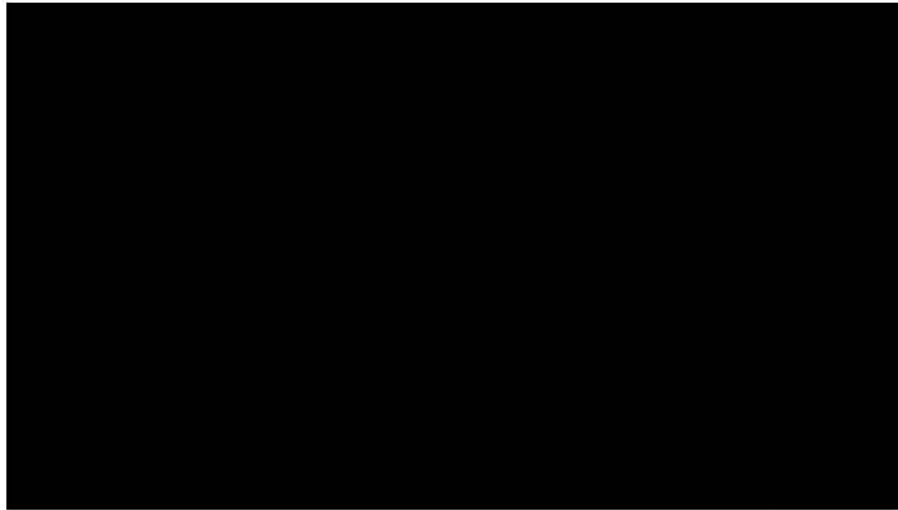


지역교회와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21:15)

"예장통합 주일학교 학생수 5년 뒤면 절반 감소"

2016-12-06 19:40 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3



*감리회는 2016년 통계 자료

4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 심각

2016년도 CBS뉴스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 심각'
 2003년과 대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수
 3,680,103명 -> 3,697,492명(0.5% 증가)
 중고등부 학생수(예장통합)
 179,472명 -> 157,409명 (12.3% 감소)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를 심각... 가장 큰 책임은 부모

2016-07-13 10:19 CBS 90분특 7:9



● 교육부서가 해답이다.

앞으로의 교회는 고령화가 되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교회를 옮기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일학교의 유무일 것이다. 또한 그 주일학교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일 것이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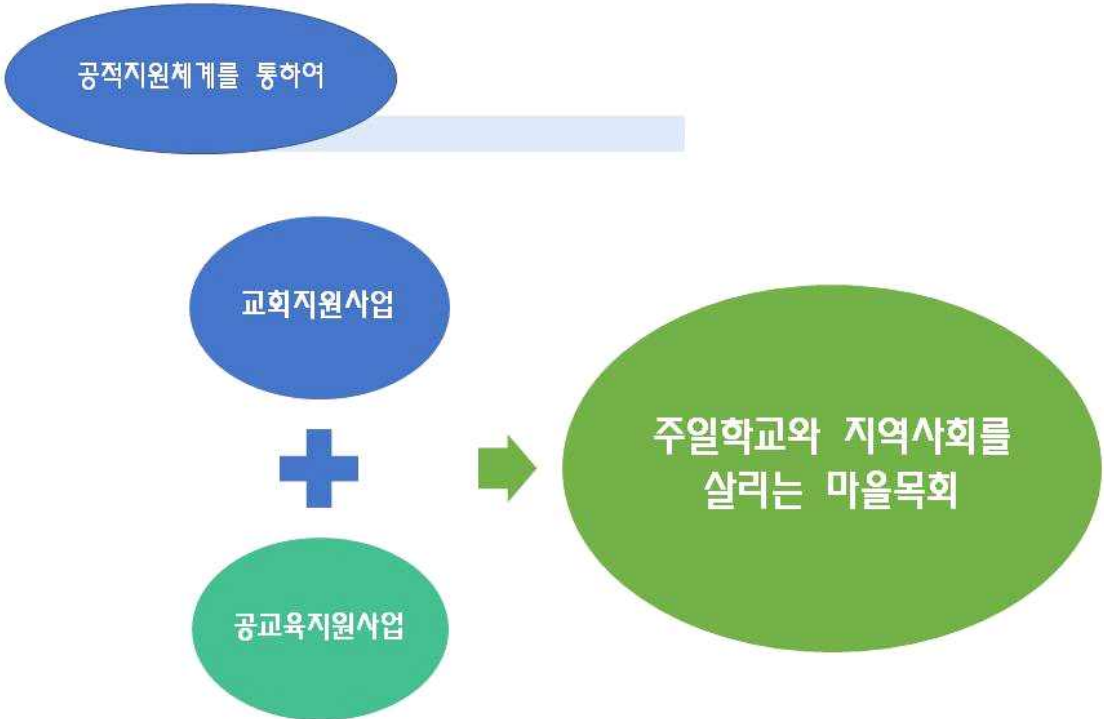
-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중 -



5

어떻게 주일학교를 살릴 것인가?

6



7

사업소개 공교육지원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문화체육관광부사업)

시)더불어배움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학교와 지역마을이 함께하는 학생지원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칼라테라피, 미임, 진로, 독서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과, 문화 공연을 함께 결합시킨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 **찾아가는 청소년 공감 음악회(6회)**

학교, 마을 등 문화소외계층 및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음악가의 참여를 통해, 음악테라피, 작은음악회 등의 학생 참여 교육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능력 향상하도록 합니다.

● **청소년 공감 페스티벌(7회)**

칼라테라피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미임을 통해 수용된 상대방과의 감정을 소통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건강한 공감대를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 **청소년 공감캠프(4회)**

공감캠프는 진로특강과 청소년음악회, 칼라테라피, 마임테라피 등, 나를 찾아가기 등의 비교과적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아를 성찰하고, 교유관계를 향상시키며, 창의력 개발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8

사업소개

공교육지원사업

학교케어프로그램(서울시/고양시)

학생-교사-학부모를 위한 공교육지원 종합지원프로그램으로 2016년 서울시서부교육청,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와의 MOU를 통한 서울시서부교육청 관내 1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서울시 18개 중학교, 고양시 7개 학교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 자존감 회복, 업무역량강화, 학생의 학습스트레스 해소, 공감과 소통, 창의성 개발과 문화감수성의 함양, 학부모의 자녀와의 소통과 자녀교육에 대한 교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생공감페스티벌

마임테라피, 칼라테라피, 드라마테라피, 음악테라피 등의 비교과적 콘텐츠와 진로캠프, 독서캠프 등의 인문학교육,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활용한 공연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간에 소통과 공감을 증진시키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며, 행복한 기억을 공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사공감힐링캠프

문화산책, 자연힐링을 통한 심과 만남, 인문학 소양을 위한 인문학특강, 교사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마임테라피, 칼라테라피 등의 체험교육을 통한 교사로서의 건강한 정체성 재확립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지원, 교사들간의 친밀한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학부모아카데미

독서, 자아성찰, 인문학산책, 진로선택, 가족치료, 다중지능, 뇌과학, 융합예술교육, 사춘기자녀의 성교육 등 학부모에게 필요한 전문 강연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당면하는 문제들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며, 자녀의 진로지도와 인성교육을 해낼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⁹

사업소개

공교육지원사업

교장연수프로그램(서울시/고양시)

학교는 공공적인 사명(public mission)과 그 책임에 의해 조직된 장소로 교장은 그 공공적인 사명과 책임을 맡고 있는 공교육의 전문직업과 동시에 학교의 운영자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교장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와 음악회와 자인/문화 힐링프로그램, 토론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인문학적 통찰을 높이며, 대한민국공교육 현장의 리더로서 건강한 교사의 자리로 고민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의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은평구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서울시서부교육청관내 46개 중등교장들을 위한 '중등교장리더스클럽' 와 대구지역 교장들을 위한 '교장공감캠프'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공교육지원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판타지극장/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 재즈, 힙합, POP, 인디밴드 등의 다양한 음악가 풀과 마임공연, 마술, 프리스타일 농구 등의 문화공연을 결합한 종합예술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서울교육청 관내에서 공연시설 부족 등의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속하는 은평구의 학교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2016년과 2017년 각 10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은평청년참여위원회' 심사를 통한 사업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10개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사힐링연수(대구교육청 교육연수원/부산교육청 교원자유힐링센터)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교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더불어배움의 교사공감힐링캠프는 2013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13년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연수원과의 MOU를 통한 '대구에듀힐링'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맞춤형혁신사업인 '교사힐링캠프'를, 2016년도부터는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와 함께 '교원자유힐링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사업소개

교회지원사업

마을작한배움터사업-마을형청소년케어(은평구)

지역의 교육서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더불어배움의 지역의 학교, 교육거점, 지역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해 은평구에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을도요학교입니다. 프로그램은 은평방과후지원센터와 은평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한 공교육현장과 지역교육거점의 1:1 매칭, 지자체의 예산지원, 공간활용을 위한 지역교회의 Open Space 제공과 기타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며, (사)더불어배움의 신뢰성 있는 공교육지원컨텐츠와 은평마을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요학교의 선생님이어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참여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은평구청, 은평방과후지원센터와 (사)더불어배움의 지역교육거점이 되는 교회가 마을작한배움터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

사업소개

교회지원사업

주민인문학

주민인문학은 지역교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회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전문 강사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현안들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을 섬기며 지역구성원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주민인문학은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총 6개의 교회에서 각각 4~6번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해는 학부모들을 위한 인문학 시리즈를 진행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13

사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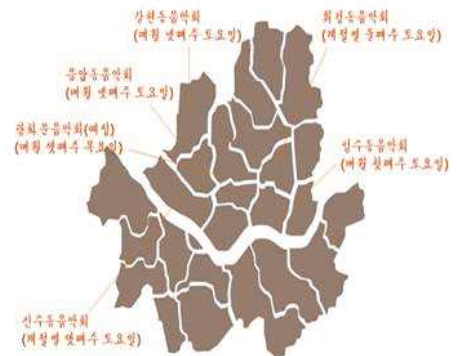
교회지원사업

마을음악회



건강한 마을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음악회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성 이슈의 환기 및 마을의 정서적 안정감, 문화적 감수성, 지역구성원간의 관계성 회복을 돕고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마을토요음악회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까지 5개 지역 정기 음악회 45여회, 비정기음악회 200여회가 진행되었고, 2017년 9월부터는 현대예술 사회공헌부의 후원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광화문에서 마을음악회 무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14

성암교회의 사례

- ▷ 지역 인문학 아카데미
 - 연 1회 6회 실시
 - 지역 학부모들과의 관계 형성에 기여
- ▷ 구체적 프로그램
 - 교사힐링캠프
 - 교사인문학
 - 학부모 교육
 - 학생정서지원프로그램
 - 학교장 협의
 - 지자체 참여 프로그램
- ▷ 지역 공개 여름학교
 - 대상: 지역의 초등학생들, 교회학교 아동부
 - 프로그램: 공감캠프
 - 참여: 약 90명(지역아동비율 약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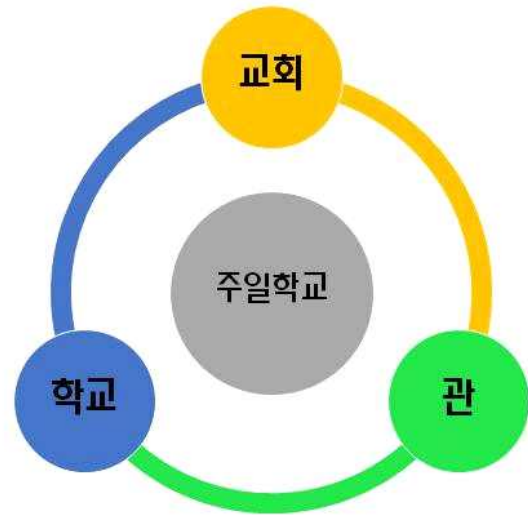


공적지원체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주일학교



※ 3년간 53개 학교 / 125회 프로그램 / 연인원 20444명 증가

공적지원체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주일학교



17

감사합니다.

18

마을과 함께하는,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마을형 청소년케어

: 마을착한배움터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개인과 다양한 단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더 효율적인 사회돌봄을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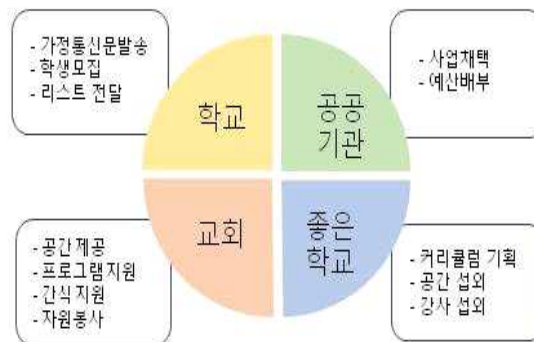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는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마을형 청소년케어는..

마을형 청소년케어는 방과후 토요일에도 찾아갈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마을의

학교, 공공기관, 교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정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소개

- 기관소개
- 프로그램 소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9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19위입니다. 물질적 행복을 비롯해 외형적인 상황은 부모 세대보다 나아졌지만, 요구되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과 무동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관계에서 보인 행복지수 결과는 '관계성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OECD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한국

	주관적 행복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생활과 생활양식
점수	90.4	114.4	110.7	114.5	106.1	135.7
순위	19/23	2/18	4/26	3/25	17/23	1/20

*순위 항목의 분모는 모집단 국가 수

자료: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소개

▪ 프로그램 개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마을형청소년케어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거나 반대로 학생들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아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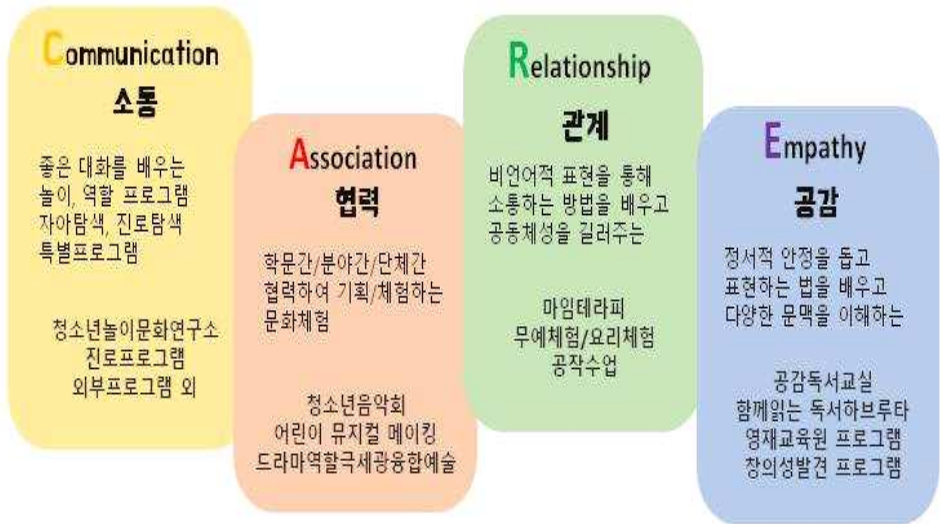
소개

▪ 프로그램 개요



마을형청소년케어 핵심가치

마을형청소년케어는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우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핵심가치



2016/17 사업의 성과

2016년 은평구청과 3개교회의 지원을 받아 3개 학교, 3개 교회의 참여로 시작한 마을형청소년케어는 2017년, 더욱 많은 학교들과 지역교회가 함께하여 7개 학교, 6개 교회의 360명의 아이들과 1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713명이 참여



사업성과
 ▪참여인원증가



2017 은평구 마을형청소년케어 맵



연간계획

- 진행상황
- 참여현황
- 연간계획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 뿐만 아니라 가정 밖의 이웃들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마을형청소년케어와 함께 해주세요.

